

조정식 ‘대통령 연임’ 발언 후폭풍… 與野 개헌론 놓고 충돌

(국회의장)

“연임, 개헌 논의 대상 아냐” 진화
국힘 “李 장기집권 시도” 공세
여권 “헌법상 불가능” 선 긋기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 의장이 29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아권은 여전히 공세를 펼쳤다.

◆ 장동혁 “李 장기 집권 위해 헌법까지 뜯어고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 의장이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이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급기야 어제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끄집어냈다”며 “이 대통령이 장기집권할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수 있도록 헌법까지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이 아니면 다음 개헌 때 포함할 것인가”라며 “헌행법상 개헌을 한다 해도 이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국민의 선택이라는 사전인수격 조건까

지 갖다붙였다. 어떻게든 이재명 연임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난 1년도 이렇게 견디기 힘들었는데, 앞으로 남은 4년은 더 까마득하기만 한데, 어떻게 감히 국민 앞에서 연임을 입에 올릴 수 있나”라며 “후안무치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재판 취소를 위한 모든 작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6선)도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회의장이 국헌 문란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면 단순히 사과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宋 “동의 얻기 어려워”·鄭 “기자에게 낯인 듯”… 靑 “이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도 조 의장의 발언에 우려 섞인 지적을 내놨다.

송영길 후보는 MBC ‘뉴스투데이’에서 조 의장의 발언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후보는 “이 대통령도 분명히 밝혔듯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의 연임이나 임기 연장과 관련한 헌법 개정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

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청래 후보 역시 CBS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조 의장이 기자들에게 낯인 것 같다. 헌법 128조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조 의장이) 디테일(세부 사항)에 약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도 사태 수습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통령은 순방 중이고 여러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과 주가 상황, 민생경제가 매우 중요하다.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익표 정무수석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gws0325@metroseoul.co.kr



metro

민항기·희토류·수소… 韓·브라질 경제동맹 강화

李,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석
양국 기업 간 총 7건 MOU 체결

브라질을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한국과 브라질의 기업인들과 만나 양국 경제 교류와 관련해 “앞으로 차세대 민항기 공동 개발을 포함해서 핵심광물 분야의 공급망 협력,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까지 이 세 가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브라질과 그린수소 생산 등에 대한 기술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양국 기업 간 총 7건의 MOU(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파울루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에 참석해 “이미 브라질은 대한민국의 남미 최대 교역국이고, 한국 기업의 브라질 진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 패권 경제의 심화 그리고 공급망 재편으로 전 세계 산업과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한 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독보적인 혁신 기술과 제조 역량에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이 힘을 합친다면 양국은 안정적인 공급망과 미래 산업을 함께 이끄는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과 브라질의 무역 규모가 100억달러 내외 수준인 점에 놀라움을 표하면서 “향후 양

국 간 교역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근본적 대책으로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협정 논의를 가속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어 “국가 간 산업과 경제 협력은 기업들에 의해 이뤄지지만 정부 차원의 관제나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 간 협력이 용이하지 않다”며 전담 라인을 지정해 조율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에 대한 후

속조치로 양국이 각각 상대국 진출기업·진출 희망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플랫폼을 조속히 가동하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서 최고위층 인사를 양국의 경제협력 전담인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라질에서는 행정부 2인자인 제라우두 아우키민 부통령이 맡는다. 향후 양국은 한-메르코수르 무역 협정 재개, 방산, 우주항공, 핵심광물 및 희토류 등 이번 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주요 협력의제의 성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렸으며,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집결했다. 기업인들은 급변하는 세계 경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물론 기업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국과 브라질의 만남은 필연적이며 최고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시대적인 파트너라면서 “이제 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에 따르면 현대차는 “브라질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 그린수소 생산과 수소 트럭 도입,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에 대한 기술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 브라질과 협력하면서, 희토류를 공급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브라질 내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해 양국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LG전자는 지난 30여년 간 브라질에 지속적으로 생산 기반을 확대해 왔다면서 제조업 디지털-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네이버는 중남미 지역 AI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양국 기업 간 총 7건의 MOU가 체결됐다. 대표적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엠브라에르와 민항기·항공우주 분야 협력 MOU를, SK바이오팜은 유로파마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협력 관련 MOU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메테오리소시스와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MOU를 맺었다. 김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이와 같은 민간 분야 기업들 간 MOU는 양국 간 협력이 바이오, 우주항공, 희토류 등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분야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

김용범 “주가 변동성, 구조적인 요인”

(靑 정책실장)

레버리지 ETF 책임론 일축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최근 코스피 급락의 원인을 단순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하나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개인투자자들의 역동적인 투자 성향도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 탓으로 돌리는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실장은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문제에 대해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조적 요인들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점검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AI(인공지능) 혁명의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아직은 시장이나 투자자들의 확신이 덜하다”면서 “실제 수요나 AI 쓰임새 이런 것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수요는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CXMT)의 성장도 주가 급락의 요인으로 꼽았다. 김 정책실장은 “중국 기업이

크게 성장할 경우 한국 메모리반도체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문제는 제기되고 있다”라며 “중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메모리반도체업을 육성하고 있다. 장기적인 시계에서 해당 기업을 반드시 키워내려고 할 것이고, 제조기술 등의 측면에서도 약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최근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레버리지 ETF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김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고, 개인투자자들이 매우 역동적으로 투자하며, 관련 파생상품이 많기 때문”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도 영향을 준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李 대통령, 룰라 일했던 노조 사무실 방문

“노동 존중 세상, 국경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오후 루이스 아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과거에 활동했던 상파울루 ABC 급속노조 본부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일정을 끝으로 이 대통령은 브라질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 대통령은 웰링턴 다마스세누 상파울루주 급속노동조합 위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룰라 대통령이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1975-81년)의 집무실이 보존된 전시 공간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전날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룰라 대통령께서 젊은 시절 일했던 급속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볼 생각”이라며 일정을 깜짝 공개했다.

상파울루 지역 ABC 급속노조 본부는 1970-80년대 브라질 군사정권 시기 민주화와 노동권 신장을 이루어낸 역사적인 공간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급속노조 방문 이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브라질이나 대한민국이나 다를 것이 없다”며 방문 소회를 전했다.

/서예진 기자